

10社, 치료제 개발 착수... 임상 감안 땀 연내출시 힘들 듯

제넨바이오

코로나 백신 개발 컨소시엄 참여

엔지켄생명과학

美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 추진

일양약품

신약 후보물질 코로나에 효과

셀트리온

치료제·멀티항체 개발까지 진행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신속진단키트 개발에 2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아직 개발 초기단계 기대는 일러”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다만, 아직 국내 업체들의 치료제 개발은 임상 초기나 준비 단계인 만큼 과도한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하반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16일 제넨바이오는 제넥신이 발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DNA백신 GX-19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

혔다. 제넥신은 지난 13일 국내에서의 신속한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바이러스, 백신, 면역학, 생산 등 DNA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각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컨소시엄은 GX-19를 신속히 개발하고, 오는 6월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빠르면 7월 중 임상시험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제넨바이오는 해당 컨소시엄에 제넥신,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와 함께 참여한다.

엔지켄생명과학 역시 이날 신약물질

EC-18항COVID-19작용기전의 치료제로서 신약물질 효과에 대해 국내 치료제 임상,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지켄생명과학은 지난 3일 미국 보건성 산하 생의학연구개발청(BARDA)의 의료대응조치(MCM) COVID-19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했다.

‘EC-18’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 및 세균을 신속하게 집어삼켜 빠른 시간내에 제거하게 하는 작용기전을 가지는 물질이다. 즉, 바이러스 및 세균과 같은 병원체를 인지하는 수용체가 이를 포획하는 순간 병원체를 빠르게 탐식하게

하고, 집어삼킨 병원체를 빠르게 분해해 제거한다.

일양약품은 이미 신약으로 출시한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와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신약 후보물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양 받은 바이러스를 이용해 두 약물에 대한 시험관내 시험을 진행한 결과,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함을 확인했다. 회사측은 슈펙트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시판중인 신약으로 다른 후보 물질에 비해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역시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메르스 치료용 항체 개발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는 동시에 추후 바이러스 변이에 대비한 멀티항체 개발까지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이달 안에 중화능력이 높은 항체를 찾아내고, 6개월 뒤에는 인체 임상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상 역시 개발비가 많이 들더라도 필

요한 환자가 있는 만큼 규모를 키워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업체들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은 셀트리온을 비롯,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셀리버리, 노바셀티크놀로지, 이문메드, 유틸렉스, 지노믹트리, 카이노스메드, 코미팜, 쟈멕스 등 10곳이다.

다만, 실제로 치료제를 코로나19 확진자에 투여하는 인체 임상에 돌입한 국내 치료제는 없어 큰 기대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효과와 안전성 입증에 위한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임상에 돌입한 코로나19 치료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 임상 3건이 전부다. 국내 업체 중에선 이문메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을 마무리했지만, 이는 인플루엔자 적응증에 해당하는 임상이었다. 이문메드는 현재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ee@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모든 것이 달려... 방역 더 강화”

文 대통령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확진·격리자 감소에도 방심할 수 없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방역 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소규모 감염 사례가 수도권에서 연이어 나타나자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 19 확산 기초가 인구가 많이 밀집한 수도권에 나타나자 사태 파악과 수습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와 격리 치료받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발생으로 ‘방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도권

에는 콜센터,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한 이유로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점 ▲일상생활이나 활동에서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장소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꼽으며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 공동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요인인 다중밀집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지센, ATB마스크 3입 2900원 판매

(세탁 후 재사용 가능)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혜택 되기를”

위비스몰·지센 300개 매장 등 판매
향균·약취방지 뛰어난 기능성 제품

패션기업 위비스의 여성 리유 브랜드 지센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3입 2900원’이라는 획기적인 가격에 흡습속건과 UV차단기능이 뛰어난(ATB) 소재 마스크를 판매한다.

지센은 17일부터 ATB마스크를 지센 전국 300여 개 매장에서 일제히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센의 모회사 위비스 측은 “지센 마스크의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며 “위비스몰을 통한 온라인 구매와 지센 대리점을 통한 오프라인 구매, 그리고 기업체나 관공서의 대량구매가 가능하도록 가용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센의 ATB마스크는 세탁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ATB-UV는 향균, 약취 방지 기능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도 뛰어난 기능성 소재다. 뛰어난 향균성은 은 성분을 원사 내부에 특수 기술로 처리했기 때문에, 여러 번 세탁하더라도 향균 성능이 지속된다. 또한 세심하게 설계된 단면 구조는 세탁 후에도 빠르게 건조되며, 땀 흡수력 역시 뛰어나다.

재사용 가능한 ATB마스크 3개 입에 2900원이라는 획기적인 가격도 눈길을 끈다. 통상 ATB소재의 마스크 시중 가격은 개당 5000~7000원이다. 그러나 이번 지센의 ATB마스크는 약 4분의 1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위비스몰에서 ATB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제품소개와 함께 마스크 세탁 방법이 담긴 동영상도 게재되었다. /위비스



화곡동에 위치한 위비스 지센 마스크 공장의 전경.

“충분히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지센 관계자는 “지센은 대리점과 지역사회에 대한 상생과 위기 극복 동참의 이념으로 시작했다. 더욱 많은 분들께 최상의 혜택을 드리고자 재능기부 차원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지센 마스크로 코로나 19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센의 마스크 공장은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사전 예약 첫날인 13일부터 지센 마스크는 온라인 약 2만 세트(6만 장), 단체구매 약 5만 세트(15만 장)가 주문되며 인기를 끌었다. 높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센은 종 4개 라인을

긴급 마련해서 일 최대 15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마스크 제작 환경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작업 인원 전원 사전 체온 측정 후 작업에 투입되며, 위생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고 있다.

지센 성수점 점주는 이번 ATB 기능성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어려운 시대에 기업과 함께 우리 매장들도 동참해 사회 환원하는 것 같아 기쁘다. 이번 기회로 삼아 우리도 고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게 된 것 같다. 우리도 어렵지만, 고객들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센의 높은 품질과 놀라운 가격의 ATB마스크는 코로나 19의 극복을 위한 도상현 위비스 대표이사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만들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이사의 빠른 판단으로 지센은 발 빠르게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지속해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조효정기자 princess@